

지역 매아리

완주 군립 둔산영어도서관
21일 이병률 시인 초청 강연

완주 군립 둔산영어도서관에 이병률 시인이 찾아온다. 둔산영어도서관은 2018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프로그램 '결코 誦誦하지 않은 시 인문학 여행'에 이병률 시인을 초청해 '시의 힘에 관하여'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시인의 강연은 오는 2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이뤄질 예정으로 시의 힘과 심(詩心)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시와 가까워지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시인은 시집 <바람의 사생활>, <찬란>, <바다는 잘 있습니다> 산문집 <끝립>,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을 다수 출간했다. 2018년 도서간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함께 읽기 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월부터 '결코 誦誦하지 않은 시 인문학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린 택시로 등교해요”

완주군, 통학택시 운행 시작... 학생 편의 돕고 경제활성 효과까지

교통복지 실현하고 있는 완주군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을 시작한다. 완주군은 관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018년도 2학기 통학택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학택시는 대상 학생 마을과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정기 운행하는 택시로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다.

탑승지에서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까지 1000원만을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취약계층은 50%를 감면해 운영한다.

완주군은 농촌지역 거주학생들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과 함께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휴일 및 방학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운행은 등교를 기준으로 1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현장 조사와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군은 관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018년도 2학기 통학택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특히, 학생들의 편의를 도우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완주군 통학택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학기 동안 통학택시를 이용한 한 학생은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멀고 버스 시간도 맞추기 힘들어 등교하기가 힘들었는데 통학택시를 이용한 후부터 아침 여유가 생겼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학택시가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군 통학택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교통복지혜택을 제공해 지역인재양성을 도모하고, 더불어 운송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해 더 즐거웠어요”

완주군,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 수료식

완주군이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완주군은 지난 10일 관내 초·중학생 60명과 영어권 국가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한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를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주최하고, 시단법인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주관해 운영했다.

완주군은 매년 2회에 걸쳐 영어, 중국어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외 학생들을 초청해 다채롭고 실용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캠프에서는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 한국 전통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나도 문화 홍보대사',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창작 뮤지컬 발표회', 교실 밖 다양한 환경에서 실용적 표현을 익힐 수 있는 '현장 체험학습', 한국 대표무술 태권도를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배우보는 '태권 잉글리시' 등 체험과 참여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이 최근 용지면과 황산면 가뭄피해현장을 방문했다.

가뭄피해 해소 팔 걷었다

박준배 김제시장, 용지·황산면 밭작물 피해현장 방문
우선 예비비 10억원 긴급 투입·추경에 10억 추가 확보

박준배 김제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최근 용지면과 황산면 밭작물 피해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위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 강구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가뭄으로 크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인삼밭과 생강밭을 보면서 농민들과 같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즉각적인 가뭄대책 강구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현장행정 일환으로 건설과(과장 이도명)에서는 가뭄예방 및 대책으로 우선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전작 농가를 대상으로 96공의 중형관정을 개발하고,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해에 대비하기

로 했다. 또한 양수가 20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정하고 농민들이 언제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7월 11일 폭염특보 발표 이후 장기간 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농작물 가뭄피해에 대응하여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아 금강사업단에 농업용수 양수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농작물 피해가 심한 황산면과 봉남면 금산면에 장비를 지원하여 하상과 용배수로 준설 등 농작물 용수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 시장은 “밭작물의 피해가 심해지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정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한해대책으로 농민과 시가 협동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피해예방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진희와 함께하는 평화음악회

광복절 73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경축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최진희와 함께하는 8·15 광복기념식 및 평화음악회'가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14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의 주역인 가수 최진희가 특별 출연하여 가져가, 꼬마 인형, 미련 때문에, 뒤늦은 후회, 사랑의 미로, 여정, 와인 등의 곡으로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사물놀이, 태평소 등의 특별 연주자 초청으로 신모듬 중 '놀이'와 관현악곡 아리랑, 영화 <α> 등 서양의 오케스트라 음악과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융합시켜 특색 있는 볼거리로 더욱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김제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8·15 광복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가수 최진희와 아리랑심포니가 함께하는 평화 음악회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광복절 맞이 감동과 열정의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알렸다

김제시,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홍보활동 벌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김제지평선축제를 홍보하는 등 지평선축제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12일 맺은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의 MOU를 통하여 진행된 행사로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의 공공외교단 운영사업인 도민 네트워크단 러시아 하계 민간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행사에 김제시 축제담당이 함께하여 지평선축제를 홍보했다.

김제시와 전북도 국제교류센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청과 극동경제

서비스 대학을 방문 비법밥과 한지공예 시연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블라디보스토크시 국제관계관광장과 한국과장을 만나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발전방향을 논의한 후 김제지평선축제를 직접 소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축제에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했다.

특히 지평선축제의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아궁이 쌀밭짓기와 연날리기 프로그램, 쌍용놀이, 입석줄다리기 등 대동프로그램 대한 블라디보스토크시 관계자가 남다른 관심을 갖는 등 이번 방문이 지

평선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 지평선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이 지평선축제가 유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지평선축제는 글로벌 육성 축제로 발돋움한 첫해를 기념하여 세계문화 알리기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기존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넘어 아시아속의 유럽, 가장 가까운 유럽인 러시아 관광객유치를 위한 러시아테이틀 10월 7일 일요일에 운영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